

## 이사람

창간호부터 제과업계의 유별난(?) 사람을 소개해 왔던 '이사람' 지면이 이번달부터는 업계의 장기근속자를 취재하는 지면으로 바뀝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10년, 20년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있기에 업계는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들 삶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또다른 가치를 배우고자 할 따름입니다.

## 한결같은 자세로 40년의 세월을 지켜온

열여덟에 제과점에 입사했던 청년이 이제는 환갑을 맞았다.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과 함께 한 것이다. 기껏 생각해낸 외도가 제과점 경영일 정도로 우직한 이 강 전무. 40년을 훌쩍 넘어선 고려당에서의 그의 생활을 들어봤다.

“아이들 키우고 기술자로 인정받았으니 성공한 인생아닌가요”

# 이강 전무

고려당의 이 강 전무를 만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몇번의 전화통화 실패, 전화 연결이 된 후에는 만날 날짜와 시간 잡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어렵게 약속을 하고 날짜에 맞춰 사무실에 가니 이번에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혹시 약속이 어긋난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다.

그때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이 강 전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인사하는 것도 잊고 투정이 먼저 쏟아져 나왔다.

“전무님,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든 것 같네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예순이라는 나이를 잊고 살 만큼 바쁘다. 줄곧 생산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고려당에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브랑제리드 빼에르, 써틴썬티, 미미 등 외식관련 사업을 모두 총괄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인생의 또다른 전환기를 맞았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데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맡게 돼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즐겁습니다. 현재의 일을 맡으면서 몇가지 계획을 구상 중인데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열여덟에 입사해서 40년동안 회사와 함께 성장

이 강 전무가 고려당에 입사를 한 것은 열여덟살 때이다. 큰아버지의 소개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평생을 걸고 할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가 빵만드는 일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것은 선배인 공유택 씨의 영향이었다.

공유택 씨는 그가 고려당에 입사했을 때 공장책임자였다. 엄하고 까다로우며 그가 옆에만 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선배였지만 그가 만든 빵만큼은 인기가 최고였다. 또 그의 화과자 만드는 솜씨는 장안의 어느 기술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리고 공유택 씨는 당시 대부분의 기술자들과는 달리 재료의 성분이나 빵을 만드는데 필

◀어느덧 환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서히 물러날 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새롭게 맡게된 직영점 관리체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직영점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관리를 위해 전산화작업도 끝마칠 계획이고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바꿀 생각이다. 요즘 새롭게 터진 '일복'이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한다.

요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였다.

“소비자들도 고려당 마크가 새겨진 쇼펍백을 좋아했습니다. 당시는 고려당 쇼펍백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과점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저의 자부심을 높여줬죠. 또 공운택씨는 월급을 받는 기술자가 아니라 고려당 전체매출의 일정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도 그 선배님같은 최고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제품 중에는 아직도 제과점의 감초 노트를 하는 제품이 있다. 레스토랑에서 갔다가 감자 으갠 것을 튀겨서 만든 제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이 고로케다. 감자를 으개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한 재료와 양파 등 야채를 혼합해 약간 짭짤하게 간을 한 고로케는 대단한 히트상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 맛을 맞출 수 있는 고로케가 없는 것 같으며 아쉬워 했다. 기술자로서 정통의 기술과 최고의 맛을 바라는 그의 염려를 엿볼 수 있었다. 세상은 좀더 효율적인 것만을 찾고 있지만 그는 이런 변화가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고려당이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과거 선배기술자로부터 내려왔던 기술이나 제품의 깊이가 점점 사라지는 것같이 솔직

히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고려당의 파운드 케이크가 유명했습니다. 그날 필요한 물량을 만들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파운드케이크를 만들어야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밤 12시까지 파운드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업소의 특징을 살리는 제품도 없고 모든 제과점이 평범합니다.”

그는 평생을 고려당에 근무하면서 이곳의 테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제과점을 경영해볼까’란 생각이었다. 빵만드는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한 것이 제과점 경영이다.

“의도를 생각하면서도 기껏 생각한 것이 제과점 경영입니다. 빵만드는 일이 아마도 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빵이외의 일은 자신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 새롭게 맡은 관리책임직 완벽하게 정리하고 물러날 생각

그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2년전까지만 해도 손수 운전을 해서 대구, 부산에서 불일을 보고 진주까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나이는 속

일 수 없나봅니다.”

그러나 물러나기 전에 이 강 전무는 새롭게 맡게된 직영점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제품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작업을 마칠 생각이고 우수한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해 급여체계도 바꿀 생각이다. 또 우선적으로 각 생산라인의 팀장을 상대로 해외장기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끝난 후 그는 인생의 절반이상을 걸었던 고려당을 떠나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해볼 계획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또 자만하거나 나태하지도 않은 삶의 자세가 자신의 평생을 한곳에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제품에 대해서는 그도 할 일이 많다. 옛날보다 정성도 부족한 것 같고 제과점마다 특징을 살리는 제품도 없고 고참선배로서 섭섭한 점이 많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 세번이요? 글썄요. 아이들 모두 올바르게 키우고 젊었을 때는 인정받는 기술자였다는 것 아닐까요.”

그는 찬스보다는 ‘일상의 생활’에 강한 사람이었다.  (글/김주희)

**사교 장기근속자를 찾습니다**

본지에서는 한결같은 자세로 한 직장에서 평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제과인을 찾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원도우베이커리에 근무하는 제과인 중에 소개할 분이 있으면 본지 독자엽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